

## (주)코미팜, 연구소 증축 등 'R&D 박차'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이킥을 날리다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주)코미팜의 R&D분야를 책임지는 장현 연구소장(왼쪽 첫번째)과 연구원들

(주)코미팜(대표이사 문성철)은 국내 몇 안되는 동물용의약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지금까지 국내 축산업 발전과 함께 해온 전통과 경험을 가진 회사이다.

1980년대부터 국내 축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한국시장 공략은 국내 동물약품업계에 있어 수준높고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 내야 하는 책임과 숙제를 안겨주었다.

외국의 축산기술이나 질병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인력과 자금을 투자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에 잇달아 출시하는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주)코미팜은 경쟁력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저명한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해외에 저명한 연구소 및 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현재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준비와 협력의 성과는 수준높은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었으며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자체 기술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이제 (주)코미팜은 수준높은 동물약품 개발은 물론 인체제약분야에서도 그 역량을 준비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의 기업으로 자리잡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올 9월 중앙연구소를 확장 이전하고 연구인력을 보강하는 등 최근 매출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R&D 분야에 '선택' 투자하고 있다. 장현 연구소장을 만나 (주)코미팜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Q** (주)코미팜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주)코미팜은 1972년도에 설립되어 동물용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무공해 천연식품 보존제, 바이오 비료 등의 제조업과 혈청검사를 비롯하여 세균분리, 조직검사, 유전자검사, 바이러스 분리 등의 연구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백신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

(주)코미팜은 현재 100여명의 임직원이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확실한 효능을 보증할 수 있는 제품개발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최근 연구소를 증축하는 등 R&D 분야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A** (주)코미팜의 기업부설연구소는 1998년 설립된 이래 항상 국내 제품 개발의 선두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정식 인가를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그리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정 병성감정기관으로 국내 질병의 진단 및 질병연구 그리고 신제품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국내 최초 닭 살모넬라 예방을 위한 '9R VAC' 등을 개발하여 국내 및 국외에 수출하여 질병예방에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법정전염병인 뉴캐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1일령 분무형 백신인 '프로백 체크 엔디' 백신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금류 질병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백신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현재 연구소에는 다양한 고가의 실험장비 뿐만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무균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15명의 연구원이 질병 진단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주)코미팜은 모든 제조시설의 무균설비화 및 자동화 그리고 대용량 바이오택터(3,000 Liter 급)를 이용한 균일한 제품 생산 등 국내 및 국제 규격에도 충분히 만족

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미팜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EAMA(유럽 GMP기준)기준이 적용되는 터키에도 수출을 시작하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주)코미팜은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연구진을 바탕으로

최고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매출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제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를 확장 이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또한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는 제조업의 고유가치를 추구하고, 소비자 만족을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이 되고자 항상 행동하고 있다.

**Q** 현재 (주)코미팜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양계(육계) 분야의 주력 제품은 무엇이며, 전년도와 올해 매출 대비 얼마 만큼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지?

**A** 현재 양계분야에서 코미팜의 주력 제품은 살모넬라 감염을 예방하는 9R VAC(가금



프로백 체크 엔디 백신

티푸스 생균건조 백신) 그리고 프로백 체크 엔디 백신, 인플루엔자, IB, IBD 등을 포함하는 혼합사백신 등이 주력 제품이다.

이 중에서 특히 '프로백 체크 엔디' 백신이 지난해에 비해 3,800% 매출신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제품은 호흡기 병원성이 없는 ND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1일령에 분무접종하는 백신으로 올해 대규모 부화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Q** 그렇다면 올해 정부의 가축방역 사업 중 육계농가의 ND백신 보조금이 수당 4원에서 3원으로 인하된 것과 관련 (주)코미팜의 생각은 어떠한지?

**A** ND 백신의 정부 보조금이 줄면서 일부 농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외국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줄면서 사용하고 있던 백신을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물량이 부족해 추가로 자비를 들여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싼 외국 백신을 정부의 보조금, 즉 국민의 혈세로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코미팜의 프로백 체크 엔디 백신으로 교체 사용하고 서도 아무 문제없이 전량 잘 사용하고 있

다. 이는 충분한 비교나 검토 없이 무조건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같은 균주를 사용하고 같은 기술을 적용해 생산되고 있는 국내 제조사의 백신을 충분히 검증하고 사용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

**Q** 정부의 항생제 사용 규제로 환경 개선제, 항생제대체제 등 기존 시장에 가려져 있던 이른바 틈새 시장이 동물약품 업계에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주)코미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A** 항생제 남용을 막는 것은 식육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질병 예방에도 중요한 사안이다.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수퍼박테리아의 출현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코미팜은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치료 또는 예방약을 개발하고 있다.

**Q** 양돈분야의 써코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획기적인 제품이 양계분야에도 있는지?

**A** 돼지 써코 백신의 성공은 면역력을 향상시켜 관련된 질병원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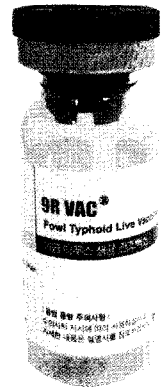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백신 접종을 통해 1차적인 질병원의 감염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 동물 자체의 면역력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원리는 닭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

으며 (주)코미팜도 바이러스 등이 닭에 감염되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균을 찾아 백신으로 개발하려고 검토 중이다.

이러한 백신은 아마도 닭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호전시켜 질병에 대한 방어력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국산 제품이라고 무조건 평가절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축산물은 국내산을 먹자고 이구동성으로 홍보하면서 왜 국산 제품은 필드에서 사용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인지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속상할 때가 많다. 국산이 무조건 싸고, 제품의 질이 낮다는 생각, 앞으로 (주)코미팜의 기술력으로 불식시킬 것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 🐔



SR VAC(가금티푸스 생균건조 백신)